교양 학생평가기획단 최종 결과보고서

모듬명		2022-2학기 교양 학생평가기획단					
구성원 인적사항	대표	이름	김00	학과(부)		학번	
	구성원	이름	강00	학과(부)		학번	
		이름	김00	학과(부)		학번	
		이름	조00	학과(부)		학번	
제안 영역		1. 평가 방법			O – 교양 수업 평가 방법		
		2. 수업 방법					
		3. 수강 신청					
		4. 교육 환경					
		5. 교양에 관한 인식 개선					

1. 주제는 무엇인가요?

<실효성 있는 교양평가 실행방안 제시>
-> 우리 대학 교양평가에 대하여 낮은 참여율, 적극적 참여 동기 부족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교양평가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2. 해결하고자 하는 교양 교육과정 문제는 무엇인가요?

해결하고자 하는 교양 교육과정 문제는 교양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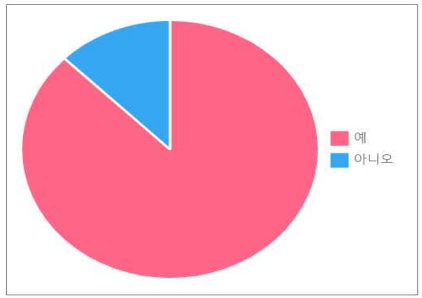
첫째, 학교 교양 평가에 적극 참여할 동기가 부족하다.
둘째, 우리 대학 수업 평가 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미비하다.
셋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이뤄지는 수업 평가는 신뢰성이 부족하다.
넷째,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수업에 대한 평가와 교수자에 대한 평가가 섞여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3.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데이터 및 통계, 선행연구 자료 등 제시)

1. 수업평가 공개를 원하는 학생이 과반수이었음

수업평가 공개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의 설문결과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8.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수업 평가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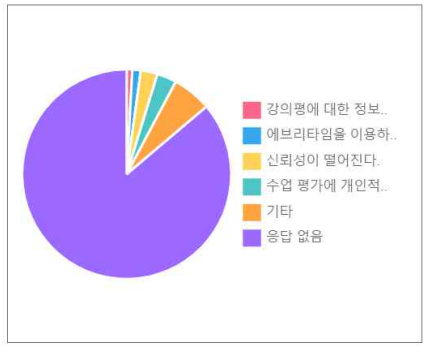
응답	응답수	
예	202	87.4%
아니오	29	12.6%

231명의 학생들 중 수업 평가 결과 공개를 원하는 학생은 202명(87.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아니요'라고 답한 학생들도 29명(12.9%)가량 있었으나 그 수가 매우 적었으므로 학생들은 수업 평가 공개에 대해서 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에브리타임의 신뢰성 부족

에브리타임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는 결과를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7-2. 에브리타임 수업평가를 왜 참고하지 않습니까?



응답	응답수 ▲	
강의평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2	0.9%
에브리타임을 이용하지 않는다.	3	1.3%
신뢰성이 떨어진다.	6	2.6%
수업 평가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	7	3%
기타	14	6.1%
응답 없음	199	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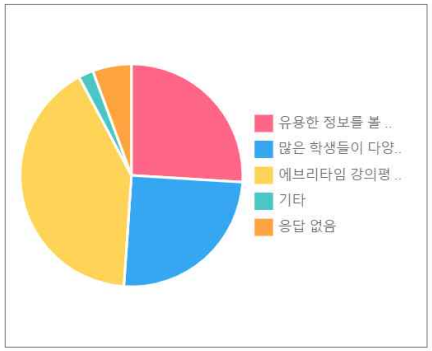
에브리타임 수업평가를 참고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수업평가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 갈 수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 는 답변이 7명(3%)로 가장 높았고 '신뢰성이 떨어진다. 는 답변이 6명(2.8%)로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본교학생들은 에브리타임에 객관성과 신뢰성의 부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체제의 부재

에브리타임의 강의평 확인기능을 대체해야하는 이유는 다음의 설문결과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7-1. 에브리타임 수업평가를 왜 참고하고 있습니까?

숨기기 취소 | 정렬 초기화



응답	응답수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다.	60	26%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8	25.1%
에브리타임 강의평 이외에 수업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95	41.1%
기타	5	2.2%
응답 없음	13	5.6%

에브리타임 수업평가를 참고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에브리타임 강의평 이외에 수업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대답이 95명(41.1%)로 가장 높았고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대답이 60명(26%),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답변이 58명(25.1%)로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에브리타임 수업평가를 참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에브리타임 이외의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대체제를 찾지 못해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에브리타임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있었으므로 신뢰성이 보장된 우리학교의 자체적인 강의평가 공개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대안 등은 무엇인가요?

교집합조에서 제안하는 수업평가 문제 해결방안은 교양 수업 평가만을 포함한다. 전공 수업 신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전공 수업 평가는 평가 항목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교양 수업평가 문제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첫 번째로 제안하고자 하는 해결방안은 수업평가 자체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교양수업평가의 근본적인 것에 해당하므로 예외를 둔다.)

첫째, 스토어 알림, 팝업 등을 통해 교양평가 기간임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의무화되지 않은 중간 교양평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품과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여 참여율을 높인다.

교양평가 기간의 전략적 홍보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의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5-1. 귀하께서 수업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숨기기 취소 | 정렬 초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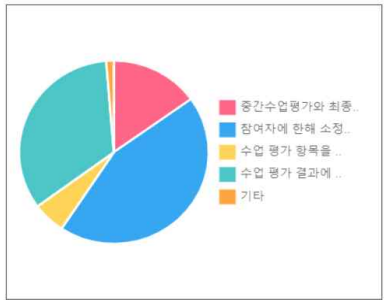
응답	응답수	
수업평가가 진행되는 것을 공지 받지 못했다.	73	31.6%
수업평가 진행 기간이 짧아 기간을 놓쳤다.	21	9.1%
왜 참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14	6.1%
귀찮았다.	30	13%
기타	8	3.5%
응답 없음	85	36.8%

수업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질문에서 '수업평가가 진행되는 것을 공지 받지 못했다'는 학생들이 73명(31.6%)로 가장 높았다. '귀찮았다'는 문항은 30명(13%)으로 뒤를 이었으나, 수업평가 시행 자체를 모르고 넘어간 경우가 많아 중간수업평가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수업평가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여 수업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가장 많다는 것은, 참여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교양평가 기간을 알지 못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어 알림과 팝업 공지를 활성화하여 교양평가 기간임을 학생들이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학과에도 교양평가 기간 고지를 의무화하여 학생들이 정보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중간수업평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평가 기간을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참여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무가 아닌 수업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는 방안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9.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수업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길 희망하십니까?

숨기기 취소 | 정렬 초기화



응답	응답수	
중간수업평가와 최종수업평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35	15.2%
참여자에 한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102	44.2%
수업 평가 항목을 구체화한다.	13	5.6%
수업 평가 결과에 따라 교수자의 수업이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강의계획서 기재, 개선 현황 보고 등)	78	33.8%
기타	3	1.3%

9번 문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설문조사 참여자 231명 중 102명은 '참여자에 한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4.2%)는 문항을 선택했다. 학생들은 일정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었다. 응답자 선택 비율을 살펴볼 때, '상품 제공', '수업 개선 확인 방안'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보아, 교양 평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10. 수업 평가 참여에 따른 보상을 제공할 경우 어떤 형태로 제공되길 바라십니까?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응답	응답수	
기프티콘 (카페 등)	151	65.4%
상품권 (편의점 등)	23	10%
교육혁신본부 마일리지	3	1.3%
자기계발활동부 점수	49	21.2%
기타	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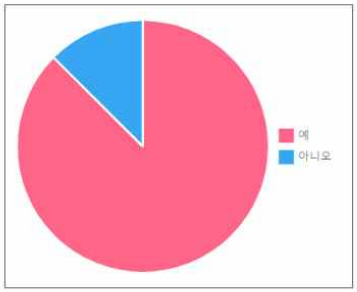
응답자들이 바란 보상의 형태는 231명 중 151명의 응답이었던 '기프티콘'(65.4%)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점수'(21.2%), '상품권'(10%), '교육혁신본부 마일리지'(1.3%), '기타'(2.2%)가 있었다. 그러나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점수를 보상에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혁신본부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예상 외로 투표율이 낮아 그 원인은 교육혁신본부 마일리지 제도 자체가 학생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것으로 파악했다. 만약 기프티콘 제공과 같은 금전적 보상이 어렵다면, 교육혁신본부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교양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 공개는 물론이거니와 전년도 강의의 피드백에 대한 개선사항 공개도 필요하다.

먼저, 교양 평가의 결과 공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8.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수업 평가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응답	응답수	
예	202	87.4%
아니오	29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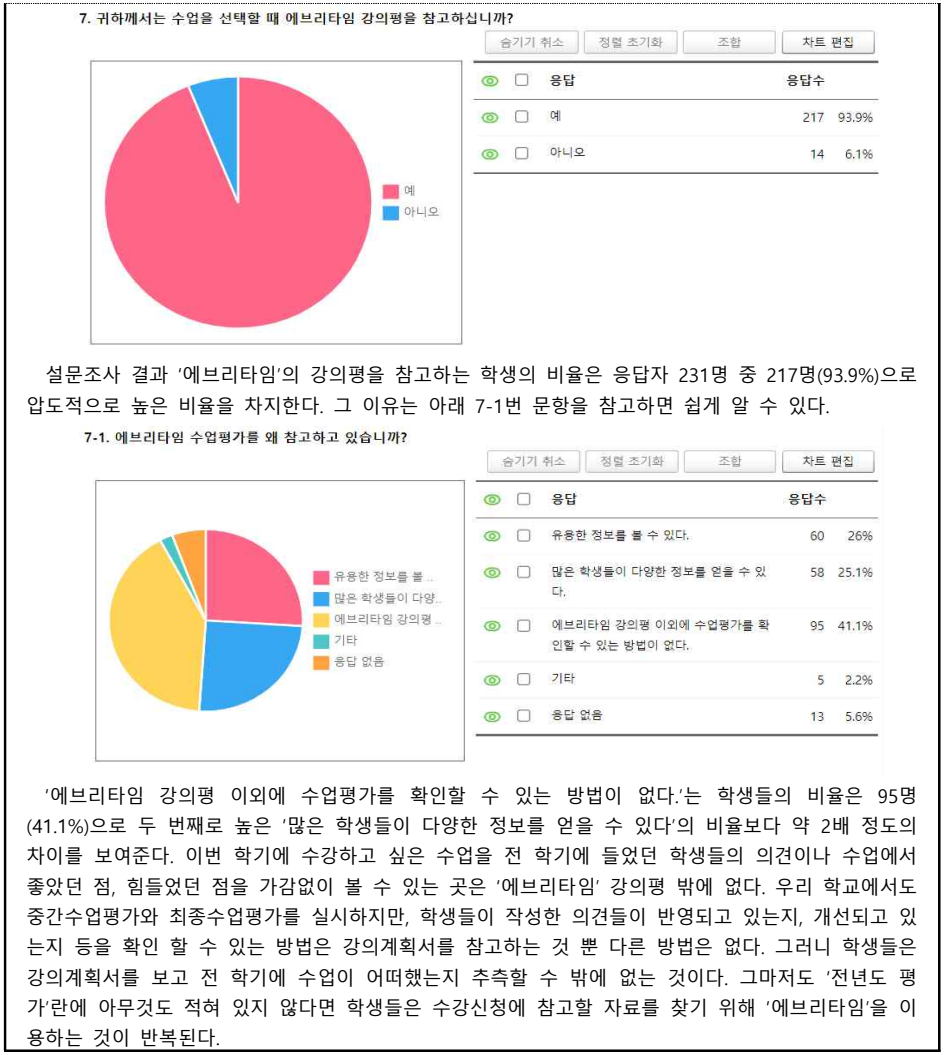
8번 문항에 의하면 231명 중 202명이 '예'로 답하여, 87.4%의 학생이 수업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긍정을 표했다. 설문 문항에서는 수업 평가로 표기되어 있으나, 교양 교과목 또한 수업에 해당하므로, 도출될 값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8번 문항의 답에 대한 이유 서술을 요구하였던 8-1번 문항에서 나온 학생들의 의견은 대표적으로 '선택의 기준의 될 수 있기 때문', '강의의 질 개선', '응답자가 신중하게 답변에 임할 수 있기 때문', '에브리타임의 정보가 편파적이기 때문', '본인과 맞는 수업을 찾고 싶기 때문' 등이 있었다. 수업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교양 평가는 기본적으로 강의의 질 개선이 1차적인 목표이다. 이런 강의의 질 개선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강의계획서에 존재하는 '전년도 평가'항목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 강의 계획서를 확인해보면 이 부분은 짧게 1~2줄로 적혀있거나, 아예 작성이 안 되어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앞서 언급된 9번 항목에서 많은 학생들은 '수업 평가에 따라 강의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일차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교양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교수자들의 전년 강의 대비 개선사항이 강의계획서 등을 통하여 확실히, 구체적으로 명시된다면 강의 평가의 실효성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강의계획서에 "작년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나온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해당 부분을 금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까?", "개선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질문들을 기재하는 것이다. 지금의 강의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년도 대비 개선사항"처럼 애매모호한 질문 대신 강의계획서를 만들때 조금은 거부감이 들거나 귀찮을 순 있지만 확실한 것을 묻는 질문들로 채운다면 강의 계획서가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8번 문항에서 '아니오'를 택한 29명(12.6%)의 의견이었다. 대표적으로는 '수업권리 존중', '개인정보', '의도적인 악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 등이 있었다. 이런 답변의 최종적인 결론은 '교수자가 평가를 받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교양 평가는 교수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교과목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런 현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교수자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도출된다. 결론만 말하자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교수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방법은 아래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혁신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탁월한 강의상' 수여이다.

이런 형식으로 교수자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홍보하며, 교양 평가의 공개가 더불어 이뤄진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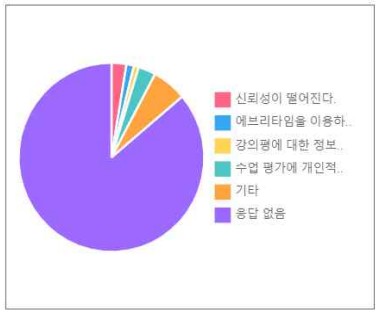
셋째, '에브리타임'의 강의평 이외에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자체적인 교양수업평가의 신뢰성을 높여 학생들이 개선되길 원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에브리타임'의 강의평을 참고하는 학생의 비율은 응답자 231명 중 217명(93.9%)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아래 7-1번 문항을 참고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에브리타임 강의평 이외에 수업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학생들의 비율은 95명(41.1%)으로 두 번째로 높은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의 비율보다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싶은 수업을 전 학기에 들었던 학생들의 의견이나 수업에서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을 가감없이 볼 수 있는 곳은 '에브리타임' 강의평 밖에 없다. 우리 학교에서도 중간수업평가와 최종수업평가를 실시하지만, 학생들이 작성한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의계획서를 참고하는 것 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 학생들은 강의계획서를 보고 전 학기에 수업이 어떠했는지 추측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마저도 '전년도 평가'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면 학생들은 수강신청에 참고할 자료를 찾기 위해 '에브리타임'을 이용하는 것이 반복된다.

7-2. 에브리타임 수업평가를 왜 참고하지 않습니까?



습기기 취소 | 정렬 초기화 | 조합 | 차트 편집

응답	응답수	
신뢰성이 떨어진다.	6	2.6%
에브리타임을 이용하지 않는다.	3	1.3%
강의평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2	0.9%
수업 평가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	7	3%
기타	14	6.1%
응답 없음	199	86.1%

그러나 '에브리타임' 강의평을 참고하지 않는 학생들 14명(6.1%) 중 '수업 평가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자가 7명(3%)이었다. 이것은 7번 문항에 '아니오'로 답한 응답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로 결코 적지 않은 수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공개되지 않는 우리 학교의 자체적인 교양수업평가를 대신하여 강의평을 볼 수 있는 '에브리타임'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학생들은 교양 평가 공개에 대해 긍정적인 비율이 높으며 수업이 개선되길 희망하는 학생들 또한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양수업평가를 공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는 점을 보여야 한다. 그리하여 '에브리타임' 강의평의 의존도에서 벗어나 우리 학교 자체만의 양질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양수업평가의 신뢰성을 높여 교양수업평가를 진행할 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수업과 교수자에 대한 평가를 분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선택의 기회를 늘린다.

수업 그 자체에 대한 평가와 교수자에 대한 평가를 따로 시행한 후, 각각의 독립적인 지표로써 활용한다면 교수자에 대한 의견이 수업에 대한 평가에 미칠 영향력이 작아져 '수업'과 '교수자'가 별개의 요소가 되어서 객관성이 확보된다. 그리고 교수자에 대한 평가는 따로 공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욱 유용하게 교양평가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업의 내용이나 출석반영률 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학생을 수업에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는가?', '수업이 끝난 후 질문을 잘 받아주시는가'와 같은 실제로 수업을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교수자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교양수업을 선택하는 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잘 맞거나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본다.

+ 교수자를 설득할 방안 제시(비방하는 표현, 악의적인 평가를 보여주지 말고 평가문항 자체를 구성할 때 수업일수, 휴강공지, 수업방식, 학생들과 소통 방식 등을 구체화해서 객관적인 지표로만 결과를 공개한다. 교수자의 인성을 배제하고 수업과 연관된 것만 포함할 것을 주의한다.)

5.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과(효과)는 무엇인가요?

교집합조가 제안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평가 결과가 공개된다면 학생들의 교양평가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자신의 교양평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증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중간 평가의 참여율도 함께 높일 수 있어, 수업의 진행과정부터 마무리까지 더욱 확실한 파악이 가능해진다.

둘째, 우리 학교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교양평가가 될 것이다.

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브리타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으며 강의평을 참고하는 학생들도 객관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려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학교 자체에서 진행하는 교양수업평가를 분석 및 통계를 통해 자료로 만들어 공개적으로 배포한다면 학생들은 교양수업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셋째, 교수자에 대한 평가가 공개된다면 양질의 수업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헬스클럽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한가롭게 운동을 하던 사람들 역시 타인이 자신을 지켜본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훨씬 더 많은 힘을 내서 힘차게 움직이는 현상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시선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일이든 바람직한 행동이든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학기 동안의 수업에 대한 평가가 공개된다면 그동안 평가를 좋게 받지 않아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 강의에 신경쓰지 않던 교수자들도 평가가 직접적으로 본교 학생들에게 공개된다는 요소로 인해 다음 학기의 강의평가를 생각해서라도 수업에 더욱 신경 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며 '시민역량'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대학에서 제시하는 핵심 역량에는 시민 역량이라는 것이 있다. 이 시민 역량은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소통하며 공공선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대학이라는 공동체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내는 방법 중 하나는 교양평가이다.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이 되는 것을 대학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미래의 핵심인재를 키워내는 데에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